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역 밀착 의정활동 · 대안 제시 활발

전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021년 한해동안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위협받은 일상회복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제도마련에 힘썼다. 도민안전망 확보와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활동도 벌였으며, 정부의 대규모 SOC사업에 지역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도의회는 특히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비해 조직과 제도도 정비했다. 올해 초 신설된 입법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지역밀착 자치법규 발굴과 예결심심의 전문성도 높였다.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원회별로 정리한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 부위원장 이한기, 김기영,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나인권, 이병도, 이병철, 홍성일 의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회기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청렴 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특히, 올해는 전반기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 후생복지 등을 규정한 조례 제·개정안 24건을 심사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데 집중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고, 공공기관 유지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근) 3기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도 힘썼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심사도 심도 깊게 살폈다.

운영위는 지난 4월 한국부동산기공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7월에는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회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일, 황의탁 의원)는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핵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갔다.

청년정책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민생특별사법업무 확대 등을 위한 기구 신설과 소방 현장 인력 확충 등의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꼼꼼히 살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행정서비스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지의 적정성 등을 따져 세계사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13건을 통과시켰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을 제정해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 관련 시설 및 인원을 확충해 도민안전망 확보에 노력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김대오, 김만기, 나기하, 진형석, 홍성일 의원)는 올해 환경개선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복지문제 해결, 코로나19 국

지방자치법 내년 1월 13일 시행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준비 집중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 근무환경 개선 · 소방 관련 인력 확충 노력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 지원 조례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성과 거둬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제정 도내 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복에 힘썼다. 이와함께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복위는 특히 코로나19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했으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직사회 기부문화 조성에도 앞장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계층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급식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민을 대변하는 성명서 및 건의문 채택도 활발했다. 수술실 의료사고 대응 및 환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령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성명을 냈으며,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전차상거래 특성화물 통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행정구역 분쟁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새만금행정협의회 역할을 주문했고, 수질개선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협동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동거 고독사 개념을 전국 최초로 반영한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농산임경제위원회

농산임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국주영은, 두세훈, 이한기, 정호운, 최훈열 의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도내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 농가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민의 건강안 먹거리 확보와 농축수산업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분 발언을

통해 수소산업 집담 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대학원 및 대학교 교육과정 신설을 촉구했고, 수소위원회 설치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와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도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집단민원이 야기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입점 재검토와 탄소중립 농업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전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김명지, 오영근,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한원수 의원)는 올해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력해 건의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전라선 고속화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등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에는 노을대교를 비롯한 8개 사업이 포함됐다.

2020년 발생한 수해 복구 및 예방활동도 지속했다. 복구사업 점검 결과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가 심각해 역대 최대 규모인 도비 85억원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댐 하류지역 피해완전 조사결과 문건위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인재로 밝혀지면서 피해 주민들이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조직관리와 운영 부문의 문제점을 찾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역발전동력인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질 높은 문화예술체육행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강용구, 김종식, 박희자, 최영일, 최영일 의원)는 학생들의 학습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5분 발언 등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와 무상교육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전북형 뉴딜교육 시행도 제안했다.

학생들의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지원 조례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학생 흡연·음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등도 제정했다.

코로나19로 학습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육위는 교육정책의 실효성 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현지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남부공학 및 봉평합추진 학교를 찾아 살피고 도서관과 조리실 등 학교내 주요 시설점검에 나서는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호성기자

▶▶ 사진으로보는 상임위 의정활동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도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피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군산 선유도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수난구조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을 격려 방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산임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스탠드농업 고춧가루 기공공정을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암실에 조성중인 국제야구장 시설을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북학생수련원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의정당의회소 · 포부

“지역현안 도민 목소리 대변 앞장”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 황영석 부의장은 올해 한해 전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과 지역 주요 현안에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무게를 두고 활동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소상공인과 예술인 관광업계 등 일상범람으로 타격을 크게 받은 도민들에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살피는데 역량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한

송지용 의장, 최영일 · 황영석 부의장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활동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전주~김천철도망과 도로 등 도내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 부의장은 “청년층 이탈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 전



북이 당면한 지역소멸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드는 데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